

해경 뒤늦은 선내진입 지시 현장서 목살

침몰 순간 교신 녹취록 “배 기울어 못 들어가”... 퇴선 유도 방송도 지시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지휘부가 선내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지만 이미 기울기가 심해 선내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장에 첫 도착한 해경 123정(100t급)과 목포해경·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간 ‘구조수공용통신(TRS)’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해경에서 받은 녹취록에 따라 해경 경비정의 현장 첫 도착 순간부터 세월호 침몰 순간까지 주요 상황이 알려졌다.

해경 123정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장 상황을 빨리 보고해 달라는 목포해경 상황실의 요구에 123정이 첫 보고를 한다. “여기는 현재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현재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 직원을 000 00(이하 잠음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시켜가지고 안전유도 하개끔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123 선수(벙머리)를 여객선에 접안해 밖에 지금 나온 승객 한명씩 한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이상 9시44분) 이때 구조된 이들 중에는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포함돼 있다. 김·경 합동수사본부의 공소장에는 선장 이씨가 구조된 시각을 오전 9시 46분으로 보고 있다.

123정의 다급한 보고를 받은 서해지방청 상황실은 처음으로 123정에 선내 진입을 지시한다.

“본청장과 서해청장 지시사항임. 123지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9시 48분) 그러나 123정은 세월호 좌현이 완전히 침수됐으며, 좌현 쪽에서 더 구조하기 어렵다고 보고한다. “현재 여객

선이 좌현 현측이 완전히 침수했습니다. 약 60도 이상 0000 가지고 현재 좌현쪽으로는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조방법은 항공을 이용하기고 우현 상부쪽에서 구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9시 54분) 상황실에서 “그쪽에서 상황 봐가면서 정장님이 최대한도로 승선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이라고 하자 123정은 다시 한번 어려움을 토로한다. “현재 경사가 너무 심해 0000 올라갈 길이 없는데요. 일단 항공 3대가 계속 구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저의 직원들을(세월호)승선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 못들어가고 있습니다.”(9시 54분)

김문희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자 승객들을 바다로 뛰어든도록 할 수 있는지 묻지만 123정은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근처에 어선들도 많고 하니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

크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되나. 반대방향으로.” “현재 좌현 현측이 완전히 침수돼 좌현 쪽으로는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늪인 상태라서 항공에 의한 구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구조는 당연히 하는데 정장이 판단해서 우현쪽으로 난간 잡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해서 바다에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검토해.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0000 0000 뛰어내리게 조치하라구.” “일단 서장님이 지시대로 좌현쪽으로 한번 해보고 하라고 계도하겠습니다.”(이상 9시 57분) 김 서장은 선내 진입과 퇴선 방송을 재차 지시한다.

123정이 선장과 선원을 구할 당시 세월호 객실 3~5층은 아직 물에 잠기지 전이었다. 123정 대원 중 누군가 선내에 진입해 승객의 퇴선을 유도했다면 인명 피해는 대폭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는 오전 10시 31분 선수 일부뿐만 난간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연남뉴스

마지막 실종자 돌아올때까지 팽목항의 등대가 되어주세요

“마지막 1명의 실종자가 돌아올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팽목항의 등대가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훌쩍 지난 18일 여전히 팽목항에서 밤을 새며 실종자 가족들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무박 2일 일정의

부르는 가족들의 곁을 지키는 것도 봉사자들의 몫이다.

광주YMCA는 수습되는 희생자가 늘어난 만큼 가족들 곁을 지키는 자원봉사자의 숫자도 줄어든다고, 국민의 관심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사 발생 한 달째인 지난

광주YMCA 무박 2일 봉사 활동

“실종자 가족들 곁 끝까지 지킬 것”

로 광주에서 내려가 팽목항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광주YMCA와 함께 자발적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나선 시민들이다. 이들은 저녁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모여 진도로 이동, 밤 9시 무렵 ‘고통의 땅’ 팽목항에서의 하루를 시작한다. 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주로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전막 주변을 청소하거나 이틀날 아침식사 배식을 돕는 일이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팽목항 방파제로 나가 자식의 이름을

16일부터 팽목항을 오가며 실종자 가족들 곁을 지키고 있다. 무박 2일 일정의 ‘야간 봉사활동’은

이달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광주YMCA 김현영 회원활동 팀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어서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잊혀져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밤을 꼬박새며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라 다소 힘들기도 하겠지만 광주시민 여러분이 많이 나서주시면 실종자 가족들에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234-0074.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억울한 영령 진혼 살풀이춤

제 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5·18 민주대성회’에서 살풀이 춤이 펼쳐지고 있다. 춤사위 뒤편에는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 등 승객 304명을 꽃으로 표현한 그림 영정들이 보인다. ▶관련기사 7면

여성 시신 1구 인양... 실종자 18명

세월호 참사 33일째인 18일 새벽 실종자 수색에서 여성 희생자 1명을 수습했지만 빠른 물살 때문에 추가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정조 시간대인 이날 오전 4시 53분께 중앙 선원식당에서 여

성 희생자 1명의 시신을 인양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전 첫 수색에 새로 모집한 민간 잠수사 1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수색에 나섰다.

남은 실종자의 잔류 가능성이 큰 3층 식당과 주방, 선수 다인실, 4층 중앙 좌측 통

로, 선미 중앙 다인실, 5층 로비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인 결과 3층 선원식당에서 희생자를 발견했다. 수습된 희생자는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만장갑과 작업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었다.

구조팀은 이날 정조 시간대인 오전 10시 54분 전후에 유속이 1.6노트 이상으로 강해짐에 따라 수색을 중단했다가 오후 3시 48분께에 다시 수색을 재개했다. 그러나 오후 5시 24분까지 1시간 30여분에 걸친

수색에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

이날 오후 수색에는 전날 새로 합류해 시험 입수를 했던 민간 잠수사 8명이 참여, 현장 적응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조류 흐름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이날 마지막 정조 시간대에도 수색 작업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사망자 시신 1구를 수습함에 따라 현재 사망자 수는 286명, 실종자 수는 18명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뇌물수수 해경 간부 1명 구속영장

유병연 강제구인 검토, 장남 검거 총력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해경 간부의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경정의 혐의를 포착, 지난 16일 동해청에서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 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천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홍준)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연남뉴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음 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선박검사와 관련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수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인가드와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한국선급과 해수부 간의 유착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2차장검사)은 18일 경기도 안성의 급수원에 머무르고 있을 것으로 알려진 유병연(73) 전 세모그룹 회장(정해진해운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 전 회장의 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 까지이며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거나 잠적할 경우 법원은 심문없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군(44)씨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남뉴스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숲속의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이지골드코트는 모든 건물에 적용이 가능한 내·외장 불연단열 마감재로서 한번 시공으로 단열, 악취제거, 결로방지, 원적외선 방출, 음이온 방출, 항균, 항곰팡이, 아토피 방지, 새집증후군 방지 등의 기능성 친환경 특화 자재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 여러분께 숲 속에서 주무시는 것과 같은 상쾌함을 약속합니다.

건물 외벽 시공, 내부 인테리어 시공, 결로방지 시공, 축사(돈사,계사) 태양복사열방지 및 불연 시공

적용장소 : 아파트, 주택 등 실내 및 발코니의 단열 및 결로방지 / 지하주차장 벽체 결로방지 / 지하노래방 습기 차단 및 탈취기능 공장 및 축사지붕 태양복사열방지 및 불연 / 노후된 건물의 내외벽 리모델링 /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41-634-9909 / T. 010-7514-3266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62-513-1400 / F. 062-513-1404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아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떡터, 산낙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르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통신판매업신고필
농협보증 에스크로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농업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